

호남정치 1번지...현역 재선 도전에 민주당 후보들 각축

광주 동구청장

광주 동구청장 선거는 현역인 김성환 동구청장의 재선 도전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들의 거센 도전이 예상된다.

이번 선거는 옛 국민의당 소속 유일한 광주 동구청장의 거취가 최대 관심사다. 19일 탈당한 김 구청장의 행선지에 따라 민주당 화당과 바른미래당이 '호남 정치 1번지' 광주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이 김 구청장의 입당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현재로서는 민주당과 화당이 접착되고 있다. 김 구청장이 민주당을 택하면 향후 선거구도가 민주당과 민평당 후보 간 양자 대결로 이어지면서 광주지역 기초단체장 선거구에서 가장 뜨거운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아직까지 뚜렷한 후보군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구청장은 전남도청, 국무총리실, 청와대 등에서 26년 동안 지방과 중앙행정을 고루 경험하며 쌓은 풍부한 행정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지역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에 맞선 민주당 후보군의 경쟁도 치열



김성환 구청장

강신기 전 실장

양혜령 원장

오형근 원장

임택 시의원

※현역·가나다 순

탈당 김성환 구청장 민평당 합류 최대 관심사
민주당 강신기·양혜령·오형근·임택 경쟁
바른미래당 뚜렷한 후보군 찾지 못해 고심

하다. 행정안전부 등 중앙부처와 광주시에서 27년간 행정경험을 쌓아온 강신기(61) 전 광주시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광주시의원과 동구치과의사회 회장 등을 지낸 양혜령(55) 치과병원장, 3번째 동구청장 도전에 나서는 오형근(55) 성형외과 원장,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 자문위원을 지낸 임택(54) 광주시의원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청년과 노년층이 서로 어울려 일할 수 있는 노·장·청 생산형 도시기반을 조성하고 청년 창업공간 제공 및 멘토링 지원체계 구축, 치과벨트와 뷰티벨트 조성을 통한 의료관광산업 확충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양 원장은 민주·인권, 경제·복지, 관광·체육, 교육·환경, 여성·청소년 등 5대 특구 건설을 공약으로 삼고 본격적인 표방 다지기에 나섰다.

원장은 문화와 감성마케팅이 충만한 도시 조성하고 문화예술공간을 중심으로 한 문화·관광·의료·쇼핑의 중심지 조성 등의 공약을 준비중이다.

동구에서 구의원과 국회의원 보좌관, 시의원을 지낸 임택 시의원은 노인 행복지수를 높여 노인들이 떠나지 않는 지역, 청년들이 재능을 발휘하고 청년들이 찾는 동구를 만들겠다는 주요 공약을 다듬고 있다.

이번 동구청장 선거의 주요 현안은 도심 공동화에 따른 도심 재생과 아시아 문화전당의 핵심자치구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문화 전략 그리고 급속한 고령화와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는 동구의 현안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 및 발전방안을 내놓는 후보들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관료 대 비관료...유권자 선택은?

공무원·퇴직공직자 많아
관료 출신 잇따라 당선
동구 토박이 비관료 후보
"수평적 리더십 전환을"

그동안 치러진 광주 동구청장 선거에서는 관료 출신 후보가 모두 당선되면서 일종의 '관선 자치'가 이어졌다. 지난 지방선거를 통해 박종철·유태명·노희용 등 행정관료 출신 구청장이 잇따라 배출됐다.

이는 동구가 과거 전남도청과 광주 시청 등이 위치했던 행정 중심지였던데다, 공무원과 퇴직 공직자가 많이 살고 있으며 고령의 유권자들이 관료 출신을 선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오는 6월 선거에도 관료 출신으로

는 현 김성환 구청장과 강신기 전 광주시 국장이 출마 예정이다. 양혜령·오형근·임택 등의 비관료 출신 출마자들은 "수직적 리더십 중심인 '관료 행정'에서 벗어나 비관료 출신이 이끄는 수평적 리더십을 통해 동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 3명은 사실상 동구 '토박이'로, 동구에서 출근 바닷민심을 다져온 게 강점이다. 당내 경선과 본선을 포함해 양 원장과 오 원장은 3차례 도전을 했고, 임 시의원은 2차례 구청장 도전 경험이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동구청장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비율을 얼마나 반영할지 여부도 변수라고 할 수 있다. 관료출신을 선호하는 노인 유권자가 많아 여론조사 비율이 높을 수록 비관료 출신에게는 불리하기 때문이다.

/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현 구청장·시의원·공공기관장 등 치열한 선거전 예고

광주 서구청장

재선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임우진(64) 구청장에 맞서 민주당 후보군들의 도전이 거세다.

임 구청장은 지방과 중앙의 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정통관료 출신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광주 서구지부 사이의 갈등 등이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당 내에서는 김보현(52)·김영남(50) 시의원과 김성현(58) 전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사무처장, 서대석(56) 광주과학기술진흥원장, 신현구(57) 광주경제고용진흥원장 등이 경선전을 준비중이다.

예초 임 구청장의 현직 프리미엄 벽이 높아 출마를 주저했던 당내 후보군들은 임 구청장과 노조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당내 경선에 도전하는 모양새다.

임 구청장은 복지·문화·자치 등 각 분야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민선6기 출범 후 그동안 중앙·지방의 각종 업무평가·공모사업에서 역대 최고 수준인 334개 분야, 사업비 586억원을 확보하는 등 복지와 지방자치분야 등에서 전국적으로 인정받는



임우진 구청장

김길수 세무사

김보현 시의원

김성현 전 사무처장

김영남 시의원

서대석 원장

재선 노리는 민주당 임우진 현 청장에 맞서
김보현·김영남·김성현·서대석·신현구 도전
바른미래당 김길수·무소속 심철의 출마 거론

자치단체로 꼽히고 있다. 임 구청장에 도전장을 내민 재선 시의원인 김보현 광주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시민단체 활동가를 거쳐 광역자치단체장 및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역임해 지방자치와 중앙정치 분야의 풍부한 경험이 장점으로 꼽힌다.

재선인 김영남 시의원은 롯데쇼핑의 웰드경기장 무단 재입대 의혹을 끈질기게 지적하는 등 날카로운 의정활동 등이 긍정

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 의원은 활기넘치는 서구를 위해 교육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최우선 목표로 삼았다. 김성현 전 사무처장은 최근 출마선언을 했다. 그는 서구발전 위해 청년일자리 창업센터 설립, 오천년 한민족 민속촌 건립, 창업아이템·아이디어 거점소 설립, 인재은행 운영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서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에 나섰던 서원장도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으로 경선

을 준비중이다. 서 원장은 주민통합, 구도심 공동화 해소, 탄약고 부지 활용방안, 중앙공원 국가공원 지정, 도시철도 2호선 구민 의견 반영, 노인복지센터 유치 등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에서는 김길수(49) 세무사가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김 세무사는 사단법인 실버행복나눔 이사장을 맡아 지역 내 시설 등을 방문하며 활발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탈당해 무소속을 유지하고 있는 심철의(44) 광주시의원도 구청장 출마를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은 전 국민의당 당원직 최고위원인 전 국정년위원장 경선에 출마해 이름을 알리는 등 '젊은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입지를 넓히고 있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인구 밀집도 높은 상무·풍암·금호 공략 포인트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그동안 광주 서구청장에는 모두 관료 출신들이 당선됐다. 이정일·김종식·전주원 전 청장 등 관료 출신이 강세를 보인 선거구로 꼽힌다.

서구는 광주의 행정·금융·경제·사회·문화 등 거의 모든 기능이 집중돼 있다.

특히 신·구 도심과 농촌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보다 주민의 행태수요가 다양하다는 지역 특성상 보다 안정적인 관료 출신을 선택하는 경향을 보인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상무와 풍암·금호지구 등은 아파트가 밀집된 신도심이 안정화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도 더욱 다양성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상무와 풍암·금호 지구는 인구 밀집도가 높다는 점에서 각 후보들에게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 때

에 각 후보들은 이 지역을 교두보로 삼고 집중 공략하는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경우 상무지구를 중심으로 한 서구갑 지역과 풍암·금호를 중심으로 한 서구을 지역으로 나뉜다는 점 때문에 갑과 을지역의 후보군들의 움직임도 관심사다.

민주당에서는 김보현 시의원과 김성현 전 사무처장은 상무지구를 기반으로 한 서구갑이, 김영남 시의원과 서대석 광주과학기술원장 등은 풍암과 금호지구를 중심으로 한 서구을이 정치적 기반이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 김길수 세무사와 무소속 심철의 시의원의 선택도 더욱 다양성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이들이 정치적으로 취약한 상대 지역구를 어떻게 공략할지도 주목된다.

/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호남지역 대표주자 YHB집진기 산업현장/요식업분야 환경을 확보드립니다

Y31Y AS24 YHB 31년의 역사와 기술이 요식업소, 산업현장 **미세먼지/오일미스트/연기**를 완벽히 제거합니다

미스트 크리너



머시닝센터, CNC 선반, 밀링가공 방전가공 외 미스트 발생 공작 기계

요식업소용 전기집진기



직화구이점 미세먼지 배출주의보 발령 대기오염 규제 대응 해결책

6-사이클론콜렉터



그라인더작업, 금속절단가공, 드릴작업, 아크릴가공 절삭작업, 파쇄, 석재가공 등 분진 발생하는 작업